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관행

정 치 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머리말

인간의 여가행동에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중 시공간적 행동패턴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아마 여행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리학에서는 여행행태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 사람들의 여행행태를 살펴보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이 ‘遊山記’이다. ‘유산기’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주로 산을 등산한 체험을 산문으로 써서 남긴 기행문학으로, 첫머리에 유람의 목적, 동행인을 기술한 다음 날짜 별로 유람을 하면서 견문한 것을 기록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시대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당시 사람들의 여행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조선시대에 저술된 20편의 ‘金剛山遊山記’를 자료로, 당시 사대부들의 여행관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여행 동기에 대한 분석으로, 사대부들이 금강산 여행에 나선 이유를 유산기의 내용을 통하여 해명하려 한다. 둘째는 여정의 복원을 통해 여행경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는 당시의 여행행태에 대한 분석으로, 여행의 준비과정부터 동반자, 교통수단, 숙박장소, 여행중의 행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금강산 여행자들의 특성과 여행동기

1) 금강산여행자들의 특성

조선시대 어떤 사람들이 금강산을 여행하였는지를 20명의 유산기 저자들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 여행자의 신분에 있어서는 20명 모두 사대부계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자의 신분이 사대부 계층에 치우쳐 있는 것은 유산기 저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보다

는 당시의 교통사정,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금강산여행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대부들조차도 금강산여행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다수의 여행자들이 금강산 인근지역에 연고가 있던 사람들이거나 금강산을 지나갈 일이 있을 때 여행을 결행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행 당시의 연령은 10대 1명, 20대 4명, 30대 4명, 40대 4명, 50대 5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현직에 있던 사람을 제외하면, 대개 30대 이전은 관직에 오르기 전에, 40대 이후는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거나 은퇴한 이후에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여행 당시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外官職에 있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여행자들의 경력이나 사상적 배경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정구 등과 같이 당상관의 고위관직을 지낸 사람들이 있는 반면, 洪仁祐·李東沆 등과 같이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은 이들도 있다. 또한 사승관계나 당파에 있어서도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불의에 대항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이들이었으며, 따라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쫓기하기도 하고, 청과의 화의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당쟁에 희생되어 유배생활을 하는 등 굴곡이 많은 일생을 보내었다.

2) 여행의 동기

금강산을 여행한 사대부들은 대개 금강산 여행을 평생의 숙원으로 간직하였던 사람들로, 이 점을 자신들의 유산기 서두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한 20편의 유산기 중 작자가 자신의 여행동기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유산기 내용 중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여행동기를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산수를 감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유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중국인들도 고려에 태어나 금강산을 직접 구경하는 것이 소원인데, 바로 이 나라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구경하지 못한다면 되겠는가”라는 언급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나고 기이한 경치로 정평이 나 있는 금강산을 직접 찾아가 감상하겠다는 희망이 가장 중요한 여행동기가 된 것이다. 앞서 금강산을 여행한 사람들의 유산기나 경험담은 사대부들의 이러한 동기를 더욱 유발하는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금강산 여행을 공부의 한 수단으로 삼아, 심신을 수련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여행자들은 “孔子가 泰山에 올라 天下가 작다”고 한 일화나, 『論語』의 “知者樂水 仁者樂山”이라는 구절 등을 거론하며, 선인들을 행적을 본 받아 이를 실천해 보려는 뜻을 꾀하고 있다. 금강산을 찾은 이들 중에는 당쟁 등으로 인해 고통스런 현실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여행에는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이러한 두 번째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셋째는 금강산에 축적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강산은 아름다운 경치 뿐

아니라 신라·고려의 역사와 관련된 전설과 불교문화재를 곳곳에 지니고 있는데, 여행자들은 그 현장을 직접 찾아 역사적 사실들을 고증하고 이를 재음미하고자 한 것이다.

3. 금강산 여행의 여정과 그 특성

1) 여정의 복원

금강산 여행의 여정은 출발지에서 금강산까지의 경로, 금강산 내에서의 경로,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출발지에서 금강산까지의 경로를 복원해 보면, 서울을 출발한 여행자들은 樓院-松隅里-梁文驛-豐田驛-金化-直木驛-昌道驛까지 동일한 노선을 택하고 있다. 이 길은 조선시대 6大路 중 第2路인 '慶興路'의 일부구간이다. 이와 같이 서울에서 창도역까지 동일한 길을 따라온 여행자들은 목적지에 따라, 일부는 新安驛과 秋池嶺을 경유해 해금강에 이르렀고, 나머지 여행자들은 斷髮嶺을 넘어 내금강에 도착하였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많았다. 서울로부터 소요기간은 해금강까지는 8일, 내금강까지는 6-7일이 걸렸으며, 여행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금강산 인근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은 거리에 따라 2-4일 만에 금강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여행경로는 출발지에 따라 다르나, 김화·회양 등 내륙지방에서 떠난 사람들은 가까운 內金剛을 첫 목적지로 하였고, 안변·강릉 등 해안지방에서 출발한 이들은 해안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外金剛이나 海金剛을 유람의 시작지점으로 삼았다.

금강산 내에서의 경로는 크게 내금강·외금강·해금강으로 삼분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20명 중 9명이 여행한 내금강→외금강→해금강의 노선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였다. 이 노선은 서울에서 출발한 사대부들이 주로 선택하였다. 다음은 6명이 선택한 해금강→외금강→내금강→외금강→해금강의 노선으로, 동해안에서 출발한 사대부들이 이용하였다. 내금강→외금강→내금강 노선은 김화·회양 등 내금강 인근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금강산 내의 체재기간은 최소 6일에서 최대 21일까지 개인별 편차가 심하나, 이주일 정도를 머무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사대부들은 내금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제일 많은 장소들을 방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외금강과 해금강에서는 적은 시간을 보내었다.

금강산에서 거주지로 돌아오는 여정의 경우, 먼저 동해안지방에 거주하던 사대부들은 금강산에 온 길과 동일한 경로를 이용해 거주지로 돌아갔으며, 往路和 歸路의 소요시간도 차이가 없었다. 왕로와 복로가 차이가 났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들로, 모두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한 곳에 며칠 간 머물다 오거나, 다른 곳을 들리기 위해 우회로를 택한 때문이다.

2) 여정의 특성

여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금강산을 향해 가는 여정은 가장 거리가 가까운 빠른 길을 선택하였고 중간경유지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져,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경흥로'라는 동일한 길을 이용하였다. 이 길을 선호한 이유는 서울에서 금강산 입구까지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경흥로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 중 하나로 비교적 잘 관리되었고 길가 곳곳에 驛·院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말을 이용한 사대부들이 숙식에 큰 불편함이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금강산 내 여정의 특성은, 기본 경로는 거의 동일하나, 세부 경유지는 여행자의 특징과 체재기간, 경유지의 접근성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기본적인 경로는 단발령을 넘어 내금강→외금강→해금강 순으로 유람하는 것으로, 동해안 거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조선시대 내내 이 노선을 따라 유람하였다. 이 경로는 출발지부터 금강산으로의 접근성과 더불어 외금강·해금강에 비해 내금강에 불거리가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결정되었고, 선인들이 남긴 유산기를 참고한 후대의 사람들이 답습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

한편 세부 경유지의 선택에는 사대부들의 여행동기와 연령·건강상태·성향 등 개인특징과 함께 경유지의 접근성이 영향을 미쳐 여행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금강산을 찾았다. 그런데 조선후기가 되면, 여행 경험자들에 의해 조망으로는 비로봉·망고봉·천일대·만경대, 수석으로는 만폭동과 백천동이 뛰어나다는 정보가 사대부들에게 널리 알려져 금강산을 찾은 모든 사대부들은 이 곳들을 구경하길 원했다. 그러나 이 장소들에 대한 경유여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여기에는 장소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위의 장소들 가운데 천일대·만폭동·백천동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나, 비로봉·망고봉·만경대는 길이 험하고 멀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따라서 만폭동·백천동은 사대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비로봉·망고봉 등을 찾은 사람들은 소수였다. 망고봉은 5명, 비로봉은 6명만이 올랐는데, 이중 성제원·홍인우·권업 등 3명은 두 곳을 모두 올라갔다. 이들은 당시 20-30대의 나이였으며, 높은 봉우리에서의 조망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인물이었다. 반면 이경석 등은 “不垂堂”·“不登高 不臨深”이란 경계를 상기하며 위험한 경유지에는 가지 않았으며, 정엽은 체력이 부족해 사위들과 같이 만경대에 오르지 못했고, 김수증은 나이와 병 때문에 정양사에 머물며 매일 당일 일정으로 주변을 유람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의 나이였다.

사대부들에게는 금강산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여행동기였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찾은 경유지는 장안사·표훈사·보덕굴·마하연·유점사 등의 사찰과 사선정·총석정 등 누정이었다. 사찰과 누정은 대부분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유여부

는 연령 등 개인적 특성보다는 숙박지로서의 편의성, 체재기간 등과 주로 관련이 있었다.

4. 사대부들의 여행행태

1) 여행준비와 동반자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대부들이 장거리 여행인 금강산 유람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 첫 과정은 여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당시 사대부들이 여행정보를 얻는 출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선 사람들의 유산기였다. 20명의 사대부 대부분이 선인들의 유산기를 읽으면서 금강산 여행의 꿈을 키우고 유람의 과정을 머리 속에 상상해 보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산 유람의 자세한 과정이 실려 있는 유산기는 전체적인 여정을 정하고 경유지, 숙박지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 여행안내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정보의 출처는 이미 금강산 유람을 경험한 사대부나 승려들이었다. 이들로부터 직접 들은 생생한 경험담도 여행에 큰 보탬이 되었다.

여행정보의 수집과 함께 여행비용의 마련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당시 현직에 있거나 고위관직을 역임한 사람들은 비용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유산기에 의하면, 가난한 사대부들은 유람을 준비했으나 끝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때에는 친지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그들의 신분과 교유관계를 활용해 여정 상에 있는 지방 관리로부터 숙식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여행을 떠날 때 챙긴 준비물은 여행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돈과 쌀·부식 등 식량, 각자 타고 갈 말, 여행안내서로 사용할 선인들의 유산기, 중간에 읽을 서적, 詩作과 여행기록에 필요한 종이와 문방구 등이었다. 이 중 식량은 2-3일분 정도만 준비하고 경유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쌀·콩·미숫가루·육포·꿀·술 등이 주로 지참하던 식량이었다.

한편 여행의 동반자는 여행자의 신분, 교유관계 등과 관계가 있었다. 출발지에서는 뜻이 맞는 2-3명의 친구나 아들이나 사위 등 가족들을 동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 사대부들은 평균 일인당 한 명의 노복을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대개는 10명 내외가 일행이 되었다. 특이한 점은 여행에 樂工을 동행시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발지에서부터 동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정 중에 합류하여 일부구간을 같이하는 동반자도 많았다. 이러한 동반자로는 금강산 인근에 근무하는 지방관리, 그리고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승려들이 있었다.

2) 여행시기 및 교통수단과 숙박지

20명의 사대부들이 금강산을 여행한 시기는 음력 3-4월이 1명, 4월이 2명, 4-5월이 6명, 5월이 1명, 8월이 1명, 8-9월이 5명, 9월이 3명, 가을이라고만 밝힌 사대부가 1명이다. 계절로 보면, 봄이 1명, 늦봄에서 초여름에 이르는 시기가 9명, 가을철이 10명으로, 가을에 유람한 사대부들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많았다. 늦봄에서 초여름에 이르는 시기가 의외로 많은 것은 숙식에 따른 불편이 다른 계절보다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총여행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출발지에 따라 금강산 인근의 강원도에서 출발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15-20일 정도, 서울에서 출발한 사람은 30-40일 내외가 소요되었다.

사대부들이 금강산여행에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은 말이었다. 20명의 사대부는 모두 금강산까지는 길과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을 이용하였는데, 이들이 사대부계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말을 이용하면 하루에도 비교적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는데, 하루에 대개 평탄한 길에서는 100리, 산길에서는 60리 정도를 이동하였다.

금강산 내의 교통수단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길이 험한 금강산에서는 말을 타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전기의 여행자들은 모두 도보로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는 '남여'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남여를 메는 일은 승려들이 담당하였는데, 점차 큰 사찰마다 담당구역이 정해질 정도로 남여의 사용이 일반화된다. 승려들이 남여를 메는 폐단을 지적한 이도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굳어지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에 이르면 금강산뿐 아니라 단발령을 넘는 데도 남여를 이용하며 여기에는 주변의 일반백성들이 동원되고 있었다. 그 외의 교통수단으로는 해금강을 유람할 때 배를 이용하였는데, 주로 지방 수령들이 제공하였다.

숙박장소 역시 왕복로 상과 금강산 안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왕복로 상에서 사대부들이 숙박한 장소는 민가, 관아, 역, 사찰의 순이었다. 민가 중 상당수는 친지의 집이었고, 지방관아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수령이 근무하는 곳이 많았다. 현직관료가 아닌 사대부들도 역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역은 공무여행자 뿐 아니라 사적으로 여행중인 사대부들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의 장점은 길 주변에 위치해 있고, 말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금강산에 체재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대부들이 사찰을 숙박장소로 이용하였다.

3) 여행중의 행동

사대부들은 여행 중에 금강산의 경치를 감상하고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것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활동 중에는 대부분이 행하는 관행으로 굳어진 것들이 많았다.

먼저 금강산을 가고 오는 길에는 친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들이 방문한 사

람들도 모두 사대부계층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강산 인근 군현의 수령들이었다. 여행자들은 평균 2-3명 이상의 지방관들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여행자의 관직유무와는 별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지방관의 여행자에 대한 접대는 친소관계나 여행자의 관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정 상에 있는 친구나 지방의 명문가를 방문하는 사례도 많았다. 금강산에 체재하는 동안에는 동반자 또는 승려들과의 대화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주제는 금강산의 고사나 전설에 관한 것이 많았으나, 여행자 대부분이 불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유교와 불교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금강산에서는 방문하는 장소마다의 감흥을 詩로 읊기는 일도 매우 중요하였다. 여행자들이 시를 짓는 장소는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특정장소에서 선인들이 지은 시를 회상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시로 읊기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대부의 금강산 유람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또 하나의 활동은 바위나 누정에 題名하는 것이었다. 특히 17세기 이후의 여행자들에게는 이것이 일반화된 행위였으며, 19세기 말의 여행자는 그 상황을 “금강산의 제명은 장안사의 동문에서부터 시작되어...만폭동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주먹만한 돌도 온전한 것이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자연을 파괴한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도 있었으나, 제명 역시 詩作과 마찬가지로 선인의 유람관행을 본 받는다는 의미가 강하였다.

■ 참고문헌

- 김용곤 외 역,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답사기, 해안.
 어문편집부, 2002, 고장이름사전(강원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이경수 외 편역, 2000, 17세기의 금강산기행문, 강원대학교출판부.
 이혜순 외, 1997,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鄭珉 편, 1996,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2·3·4권(강원도편), 민창문화사.
 정치영, 2003, “遊山記를 통한 조선시대 지리산지의 촌락경관 복원,” 문화역사지리, 15(2), 83-96.
 최강현 편, 1996, 한국 기행문학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최강현, 1992, “금강산 문학에 관한 연구(1),” 성곡논총, 23, 1773-1829.
 岩鼻通明, 1987, “道中記にみる出羽三山參詣の旅,” 歴史地理學, 139, 1-14.
 田中智彦, 1987, “愛宕越えと東國の巡禮者-西國巡禮路の復元,” 人文地理, 39(6), 66-79.